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7권 제 2호
KPTA Vol. 7, No.2, 1986.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장애정도와 학교시설 불편도에 관한 연구

—원주시내 일부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활의학기술학교실

구 애 련

ABSTRACT

A Survey of Subjective Perception of Physical Impairment/Disability and Its Relationship to School Architecture in Middle, Iligh and University Students in Wonju City.

Marion Current, B.P.T. M.P.H

Section of Rehabilitation Medical Technology, Dept,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middle,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of their presence or absence of physical impairment or disability and its relationship to the architectural status of their respective schools.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Wonju City in 1983 (university) and 1984 (middle and high schools) by questionnaire. Of a total of 2,608 respondents, 734 (28.14%) indicated some degree of physical problem. The most frequent cause in the middle/high school group was disease, the major treatment western medicine and the results of treatment unsatisfactory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most common aid used was eye glasses/lens and these were used most frequently by medical students.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school washrooms giving the most inconvenience compared with stair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school grades and school architectural barriers was analysed and discussed. And finally, student attitudes toward economic independence for the disabled showed a more positive trend in middle school students than university students. It is hoped this data will provide a stimulus for better design and planning of school facilities to help realize the WHO goal of bette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차 례

Ⅰ. 서 론
Ⅱ. 연구목적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자료 수집기간 및 방법
3. 연구도구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5. 용어의 정의
Ⅳ. 결과 및 토의
Ⅴ. 요약 및 제안
참고문헌

Ⅰ. 서 론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욕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거나 또는 후천적인 요인 즉, 질병, 노동, 교통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자가 되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장애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기본적 인권" (제 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조), "교육을 받을 권리" (27조)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손 1982).

1978년 9월 알마아타에서 열린 일차보건의료 국제회의에서 "서기 2000년에는 인류 모두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것을 합의하였고 U.N. 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장애자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각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후 '선개발 후복지' 를 지향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장애자를 위한 많은 계획과 행사를 추진하였다(민, 1981). 예를들면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년 6월 5일, 법률 3452호), 언론기관의 홍보활동, 장애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장애자의 날 선포 등이 있다. 그러나 공공 건물의 설계시 장애자들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 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용시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 그동안 몇몇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건축물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나(구, 1979; 민, 1980) 학교 건물에서의 건축물 장애에 관한 조사는 없었다. 학교 건물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활동하는 영역이므로 건물 이용시 장애물이 없는 많은 학교 건물은 학생 개인의 건강유지와 학업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학교 건물을 계획할 때는 건물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신체적 장애정도와 학교 시설에서의 불편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내어 교육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서기 2000년에는 인류 모두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대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신체적 장애정도를 조사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시설(계단, 화장실, 책상 등) 이용시 느끼는 불편정도를 조사한다.

세째, 학생들이 이용하는 치료(보조장구 포함) 종류와 치료만족도를 조사한다.

네째, 신체적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불편도와 학교 시설 이용시 불편정도, 성적을 비교한다.

다섯째,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소속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 선정은 9개 중학교 중 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중 4개 고등학교, 3개 대학 중 2개 대학을 각각 1단계 군집추출 하였다. 1단계로 추출된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2단계 표본 추출하였다. 대학의 경우는 1단계에서 추출된 2개 대학생 전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개 대학 중 1개 대학은 의과대학이고 또 다른 1개 대학은 일반 단과대학이었다. 조사 대상 수는 중학생이 2,487명, 고등학생이 1,718명, 대학생이 1,949명이었고 응답자 수는 중학생이 989명, 고등학생이 812명, 대학생이 807명이었다(표 1).

표 1. 중·고등·대학생 조사대상자 수와 응답자수

	조사대상수	응답자수	응답율(%)
중 학 생	2,487	989	39.8
고등학생	1,718	812	47.3
대 학 생	1,949	807	41.4
계	6,154	2,608	42.4

2. 자료 수집기간 및 방법

대학생으로부터 자료 수집은 1983년 5월, 중·고등학생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은 1984년 1월과 2월에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서를 사용하였으며 각 학교 당국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승락을 얻었다. 대학의 경우, 학교 체플시간에 간단한 조사 목적과 질문서에 대한 응답 방법을 소개한 후 시행하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 담임교사가 조사 목적과 질문서 응답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대학생의 신체장애 정도와 건축물로 인한 불편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자 자신이 평가하는 질문서(self-assess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자신이 평가하는 질문서를 사용한 연구 방법의 타당성은 Texas의 Galveston에서 3,255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정 받았다(Nadar, 1978).

질문서의 내용은 장애에 관한 7문항, 일상생활 불편 정도에 관한 1문항, 치료에 관한 3문항, 보조장구 사용에 관한 1문항, 학교 시설물 이용시 불편 정도에 관한 2문항, 학교 성적에 관한 1문항,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에 관한 견해 1문항등 총 16문항이었다(부록 1 참조).

질문서는 보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예비조사를 하여 각 문항을 약간 수정하였다.

〔부록 1〕

※ 다음 해당란에 간단히 서술하거나 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출생년도 _____

_____ 중, 고(대학교)_____ 성별(남, 여)

1. 현재 신체상 불편(장애)을 느끼고 있읍니까?

_____ 그렇다 _____ 그렇지 않다

2. 신체중 불편(장애)을 느끼고 있다면, 신체상 그 부위는?

_____ 1) 머리_____ 2) 몸통_____ 3) 팔 _____ 4) 다리

3. 언제부터 불편(장애)을 느꼈읍니까? _____ 세부터

4. 어떤 원인(이유)으로 불편(장애)을 갖게 되었읍니까?

_____ 1) 질병 _____ 2) 사고_____ 3) 기타

5. 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_____ 1) 심하다 _____ 2) 보통이다 _____ 3) 별 문제되지 않는다

6. 치료를 _____ 1) 현재 받고 있다_____ 2) 장차 받을 예정이다_____ 3) 받지 못하고 있다

7. 그 질병에 대해서 받은 치료의 만족도는?

_____ 1) 만족할 만하다 _____ 2) 만족치 못하다

8. 지금까지 치료 받은 내용은?

_____ 1) 양약_____ 2) 한약_____ 3) 수술 _____ 4) 침, 뜸 _____ 5) 기타

9.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장구는?

_____ 1) 안경(렌즈)_____ 2) 보청기_____ 3) 의치_____ 4) 의족, 의수

_____ 5) 보조기 _____ 6) 목발_____ 7) 기타

10.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_____1) 상 _____ 2) 중 _____ 3) 하

11.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_____ 1) 계단 _____ 2) 화장실 _____ 3) 책상 _____ 4) 의자

_____ 5) 문(혹은 현관문) _____ 6) 교실위치 _____ 7) 교실바닥 _____ 8) 학교진입로

12. 수업하는데 장애로 인한 문제가 있읍니까?

_____1) 없다 _____ 2) 있다 _____ 있다면 무슨 문제? _____

_____

13. 당신의 학교 성적은?

_____ 1) 상 _____ 2) 중 _____ 3) 하

14. 장애자가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_____ 1) 본인의 노력에 좌우된다 _____ 3) 건강한 사람과 다를바 없다

_____ 2)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_____ 4) 도움이 필요하다

수고하셨읍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자료는 Apple Ⅱ 컴퓨터의 dB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매의 디스켙에 수록한 후 연세대학교 컴퓨터 센터에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응답 결과는 각 문항별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비교하였다.

5. 용어의 정의

세계보건기구는 다음과 같이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불구(handicap)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 손상(impairment): 심리학적,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그 기능에 있어서의 손상이나 비정상.
- 장애(disability): 정상적인 인간의 주거지역이나 방법면에서의 활동 능력의 제한성이나 부족 (손상의 결과).
- 불구(handicap): 손상이나 장애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리, 연령이나 성별, 사회, 문화적 여건등에 의한 정상적인 역활 수행을 저해하거나 제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손상과 장애를 뚜렷히 구분 못한다고 가정하고 질문서에는 손상과 장애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토의

1. 장애(disability) 또는 손상(impairment)

조사대상자 중 장애(손상)가 있다고 보고한 학생수는 중학생 951명 중 263(27.7%)명, 고등학생 759명 중 248(32.7%)명, 대학생 735명 중 734(30.0%)명이었다(표 2).

특히, 학교별로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비율은 전체 학생의 최저 12.1%에서 최고 66.8%이었다. 이는 학교에 따라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분포가 다양함

표 2. 중·고등·대학생의 장애도

학교 (수)	설문지수	무응답	* 장애 있음	** 범위 (%)
중 학 교 (4)	989	38	263(27.7)	12.1 ~ 66.8
고등학교 (4)	812	53	248(32.7)	25.5 ~ 41.2
대 학 교 (2)	807	72	223(30.4)	24.4 ~ 40.9
계	26.8	163	734(30.0)	

*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임.

** 학교별 장애 보고율. % 계산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표 3. 중·고등·대학생의 장애원인 분포

학 교	질 병	사 고	기 타	무응답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중 학 교 (N1=229)	76(33.2) 136(159.4) 212(92.6)	0(0.0) 2(0.9) 2(0.9)	10(4.4) 5(2.2) 15(6.6)	0
고 등 학 교 (N2=278)	138(49.7) 126(45.3) 264(95.0)	2(0.7) 3(1.1) 5(1.8)	4(1.4) 5(1.8) 9(3.2)	0
대 학 교 (N3=786)	**24(10.4) 13(5.6) 37(16.0)	**26(11.2) 0(0.0) 26(11.2)	**120(51.7) 49(21.1) 169(72.8)	554
계(N=1293)	** 513(69.4)	**33 (4.5)	**193(26.1)	554

*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임.
** % 계산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을 보여준다.

2. 장애 또는 손상의 원인

장애가 있다는 263명의 중학생 응답자로부터 장애원인에 대한 229개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질병' (92.6%)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응답자의 경우도 '질병' (95.0%)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대학생 응답자의 경우 장애 원인으로 '기타' (72.8%)가 가장 많았다(표 3). 기타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 과제이다.

중학생 중 장애원인이 사고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없고, 여학생이 2명이었다. 고등학생 중 장애원인이 사고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3명이었다. Schilzinger (1956)는 남자가 여자보다도일생동안 사고와 과련이 많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남자가 좀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는조사수는 적지만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사고로 인한장애의 발생이 많았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 응답자 중 99명이 장애 원인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장애 원인은 근시(56.6%)이었고 가장 적은 것은 중이염(2.0%)이었다. 기타의 내용에는 각막염, 결막염, 심장병, 신경통 등이 있었다(표 4).

중·고등학생에서는 개별적인 장애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생의 장애원인 종류가

표 4. 대학생 응답자의 장애종류 및 빈도 N=99

장 애 내 용	빈 도 (%)
근 시	56 (56.6)
디 스 크	7 (7.1)
축 농 증	4 (4.1)
관 절 염	3 (3.0)
소 아 마 비	3 (3.0)
신 경 증	3 (3.0)
중 이 염	2 (2.0)
기 타	21 (21.2)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통계적 의의가 없을 것 같아 생략하였다.

3. 치료 종류별 치료만족도 비교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들의 치료종류별 이용 순위는 양약(38.6%), 기타(30.3%), 침·뜸(10.4%), 한약(9.6%), 수술(7.2%) 순위로 나타났다. 이용한 후의 치료 만족도 순위는 수술(48.6%), 양약(26.4%), 기타(25.2%), 한약(24.5%), 침·뜸(18.9%)이었다(표 5).

전체 대학생 응답자의 치료이용은 양약(18.5%), 기타(30.3%), 한약(6.2%), 수술(5.0%), 침·뜸(4.1%)의 순서이었다. 이용자 중 각 치료 종류별 만족 여부는 기타(3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양약(15.4

표 5. 신체적 장애를 보고한 중·고등학생들의 치료 종류별 이용 유무와 만족도 N = 511

치료종류	치료 이용		이용자중 만족여부		
	유(%)	무(%)	만족(%)	불만족(%)	무응답
양 약	197(38.6)	314(61.4)	52(26.4)	118(59.9)	27(13.7)
한 약	49(9.6)	462(90.4)	12(24.5)	34(69.4)	3(6.1)
수 술	37(7.2)	474(92.8)	18(48.6)	18(48.6)	1(2.7)
침·뜸	53(10.4)	458(89.6)	10(18.9)	35(66.0)	8(15.1)
기 타	155(30.3)	356(89.6)	39(25.2)	86(55.5)	30(19.4)

표 6. 대학생 응답자의 치료 종류별 이용 유무와 만족도 N = 807

치료종류	치료 이용		이용자중 만족여부		
	유(%)	무(%)	만족(%)	불만족(%)	무응답
양 약	149(18.5)	658(81.5)	23(15.4)	49(32.9)	74(49.7)
한 약	50(6.2)	757(93.8)	8(16.0)	14(28.0)	28(56.0)
수 술	40(5.0)	767(95.0)	6(15.0)	14(28.0)	20(50.0)
침·뜸	33(4.1)	774(95.7)	3(9.1)	14(35.0)	16(45.5)
기 타	93(11.5)	714(88.5)	36(38.7)	42(45.2)	15(16.1)

%), 한약(16.0%), 수술(15.0%), 침·뜸(9.9%)의 순서이었다(표 6). 대학생 응답자 중 치료이용은 양약이 많았으나 만족 정도는 '기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4. 보조장구 사용 분포

보조장구 사용 여부에 대하여 2,608명의 중·고등·대학생 응답자 중 984(37.7%)명이 보조장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장구는 안경(76.2%)이었고 기타를 제외하면 의치(4.7%), 보청기(1.3%), 목발(0.7%)의 순서이었다(표 7). 특히 콘텍트 렌즈를 포함하여 안경을 사용하는 학생수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증가하였다(표 7). 문헌에 의하면 중학생에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학생집단에서의 시력 악화 정도는 보고에 따라 13.6%에서 46.6%로 다양하다(김동명, 1983; 안 욱, 권정윤, 1984; 조재갑 등, 1983). 본 조사의 결과는 위의 사실을 지지해 준다고 하겠다. 의과대학과 원주대학에서의 안경사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의학과의 안경사용율(43.9%)이 현저히 높았다(표 8).

표 7. 중·고등·대학생 응답자 중 보조장구 사용 분포

보조장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빈도(%)	빈도(%)	빈도(%)	
안 경	212(60.8)	264(83.6)	274(85.9)	750(76.2)
의 치	15(4.3)	9(2.9)	22(6.9)	46(4.7)
보청기	2(0.6)	5(1.6)	6(1.9)	13(1.3)
목 발	2(0.6)	2(0.6)	2(0.6)	6(0.7)
의수족	2(0.6)	1(0.3)	1(0.3)	4(0.4)
보조기	1(0.3)	1(0.3)	4(1.3)	6(0.7)
기 타	115(33.0)	34(10.8)	10(3.1)	159(16.2)
계	349(100.0)	316(100.0)	319(100.0)	984(100.0)

표 8. 의과대학과 원주대학의 안경사용 학생비율

	의과대학		*원주대학
	의과학	보건학과	
안경사용자	106	48	120
재적인원	241	144	422
사용율(%)	43.9	33.3	28.4

* 인문계(국어국문, 영어영문,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과)
자연계(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의과대학과 원주대학의 보조장구 사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보조장구 중에서 안경을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의과대학의 경우 안경을 제외한 보조장구(보청기, 목발, 의수족, 보조기)를 사용하는응답자는 없었다(표 9). 그 이유는 의과대학 지원시 목발, 의수족,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는 지원자는 지원자격 중 결격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위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자의 수학 능력에 대하여 편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9. 의학과와 원주대학의 보조장구 사용 현황

보조장구	의학과	*원주대학
	빈도(%)	빈도(%)
안경	106(91.4)	120(85.7)
의치	9(7.8)	9(6.4)
보청기	0(0.0)	5(3.6)
목발	0(0.0)	1(0.7)
의수족	0(0.0)	1(0.7)
보조기	0(0.0)	1(0.7)
기타	1(0.9)	3(2.2)
계	116(100.0)	140(100.0)

* 재적인원 241명
** 인문계·자연계 총 9개학과 422명

5. 학교시설 사용시 불편도와 일상생활 불편도

스스로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511명의 중·고등학생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불편한 시설은 화장실(31.1%)이었고 다음이 학교진입로(20.5%), 의자(17.2%), 책상(15.2%), 교실위치(10.0%), 계단(9.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 아주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44(8.6%)명, 보통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73(53.4%)명,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79(35.0%)명으로 496(97.1%)명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인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표 10).

대학에서 조사한 시설 중 불편하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던 것은 책상과 계단이었다. 대학에서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807명의 응답자 중 260(32.2%)명이 계단 이용시 불편함을 보고하였고, 260명 중의 148(56.9%)명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책상의 경우는 103(12.8%) 명이 불편함을 보고하였고 103명중 62(60.2%)명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보고한 응답자이었다(표 11).

중·고등·대학교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 불편도가 보통이거나 약간 혹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시설 이용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심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 시설에 대하여 불평이 오히려 적었다. 그러므로 학교 건축물 설계시 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되도록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를 느끼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의 건강이 학교 건축물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신체적 장애를 보고한 중·고등학생의 학교시설 사용시 불편도와 일상생활 불편도 비교

일상생활		계단	화장실	책상	의자	현관	교실위치	바닥	학교진입로
불편도	학생수(%)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아주 불편	144(8.6)	4(0.8)	11(2.1)	10(1.9)	15(2.9)	3(0.6)	7(1.3)	3(0.6)	9(1.7)
보통 불편	273(53.4)	30(5.9)	81(15.8)	40(7.8)	43(8.4)	13(2.5)	29(5.7)	24(4.7)	58(11.3)
약간 불편	179(35.0)	8(1.6)	65(12.7)	25(4.9)	25(4.9)	6(1.2)	10(2.0)	10(2.0)	31(29.0)
불편 없음	496(97.1)	4(0.8)	2(0.4)	3(0.6)	4(0.8)	3(0.6)	5(1.0)	1(0.2)	7(1.4)
계		46(9.0)	159(31.0)	78(15.2)	87(17.0)	25(4.9)	51(10.0)	38(7.5)	105(20.5)

표 11. 대학생 응답자의 학교시설과 일상생활 불편도
N = 807

일상생활 불편도	계단		책상	
	불편유무		불편유무	
	유(%)	무(%)	유(%)	무(%)
아주 불편	20(2.5)	16(2.0)	10(1.2)	26(3.2)
보통 불편	57(7.1)	91(11.3)	16(2.0)	132(16.4)
약간 불편	35(4.3)	69(8.6)	15(1.9)	89(11.0)
불편 없음	148(18.3)	371(46.0)	62(7.7)	457(56.6)
계	260(32.2)	547(67.3)	103(12.8)	704(87.2)

6. 학교 성적과 일상생활 불편도

522명의 대학생 응답자 중 성적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44명(29.6%)이었다. 그중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5.5%)명, 보통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2(22.2%)명,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1(21.5%)명,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3(50.7%)명이었다.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고한 60(11.5%)명 중 일상생활 불편도가 아주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6(10%)명, 보통 불편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명, 불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6(60.0%) 명이었다(표 12).

표 12의 결과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 정도가 심한 학생도 학업에서 높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신체 장애자들은 일반인들보다 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다. 그들이 사회의 짐이 되기 보다는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조사

중·고등학생 52.2%가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이 장애자 자신의 노력에 좌우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34.3%는 장애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순위에 있어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차이를 보였다(표 13).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에 관하여 중·고등학생은 의과대학생보다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에서는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이 장애자의 노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건설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의과대학생(보건학과 학생 포함) 응답자의 반수 이상은 장애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수동적이고 동정적인

표 12. 대학생 응답자의 학교 성적과 일상생활 불편도 N = 522

일상생활 불편도	학교 성적			계
	상	중	하	
	인수(%)	인수(%)	인수(%)	
아주 불편	8(5.5)	17(5.4)	6(10.0)	31
보통 불편	32(22.2)	73(30.3)	13(21.7)	118
약간 불편	31(21.5)	43(13.5)	5(8.3)	79
불편 없음	73(50.7)	185(58.2)	36(60.0)	294
계	44(29.6)	318(100.0)	60(100.0)	522

표 13. 장애자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순위

의견	중·고등학생		의과대학생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장애자의 노력에 좌우된다	1	134(45.4)	2	385(24.6)
장애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2	109(37.0)	1	940(60.0)
건강한 사람과 다를바 없다	3	27(9.2)	3	134(8.6)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4	25(8.5)	4	109(7.0)
계		295(100.0)		1,568(100.0)

견해를 보였다. 이 이유는 의과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장애자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위의 결과는 장애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V. 요약 및 제안

1. 요 약

본 연구는 중·고등·대학생들 스스로 느끼는 장애(disability) 또는 손상(impairment) 정도와 학교 건축물 이용시 느끼는 불편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스스로 자신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서(self-assessment questionaire)를 사용하였다.

총 2,608명의 응답자 중 734(28.2%)명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중·고등학생에게서 자신이 평가한 장애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질병이었고 대학생에게서는 '기타'이었다. 그러나 기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료는 양약이었고 대다수는 치료 결과에 불만족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장구는 안경(콘택트 렌즈 포함)이었고 안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의과대학생이었다. 안경의 사용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학교시설 중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이었고 대학교에서는 계단이었다. 일상생활 불편도와 학교 건축물 이용시 불편정도를 비교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보다 덜 느끼는 학생들이 학교시설 이용시 불편을 많이 호소하였다. 결과 장애가 심한 학생도 좋은 성적을 얻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 불편도를 비교한 장애자들의 경제적 독립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는 중·고등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제 안

본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건축물 설계시 주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참고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범국민적으로 홍보되어야 하겠다.

세째, 학교 건축물 중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 일은 장애학생만 위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네째, 현재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장애 외에도 교육제도의 불합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상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자들은 수동적이며 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릇된 견해가 시정되도록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교 당국에서는 1986년 2월 12일 신문지상을 통해 1987년에 30개의 중학교와 17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그 계획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구애련 : 서울시내 의료시설에 대한 신체장애자들의 건축상 장애물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2. 김광문 : 신체장애자를 위한 건축설계, 건축 81:29~32.
3. 김동명 : 청년층의 굴절상태, 대한안과학회잡지 24:711, 1983.
4. 김명호 : 보건 교육, 수문사, 1985.
5. 김진향 : 인천시내 일부 국민학생의 건강흥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8(2):267~273, 1985.
6. 문병기 : 장애자 재활대책, 재활 13(4), 1981.
7. 민병혜 : 지체부자유 아동을 위한교육환경 시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8. 민영재 : 우리나라 장애자 시설 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재활 14(13):11~15, 1982.
9. 박용환 :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시설의 계획과 설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1:48~59, 1983.
10. 서성제 : 우리나라 학교보건 사업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협회지 11(1):15~45, 1985.
11. 손무인 : 우리나라 대학의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보건교육학회지 1(1):83~97, 1983.
12. 안병즙 : 지체부자유아의 복지현황과 대책(1), 재활 12(9), 1981.
13. 안병즙 : 지체부자유아 복지시설의 이상적 모형,

재활 14(13):19~20, 1982.
14. 안 욱, 권정윤 : 국민학교 저시력 아동의 굴절상태, 대한의학학회 잡지 24:39, 1984.
15. 안 욱, 권정윤 : 국민학교 아동에 있어서 사시의 빈도, 대한안과학회잡지 24:287~290, 1983.
16. 유향산 : 학생집단 건강을 저해하는 학교건축 환경원의 비교조사연구, 건축사 10:14~23, 1980.
17. 이영자 : 우리나라 학교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학교보건협회지 11(1):111~128, 1985.
18. 전성권 : 장애자 부모의 권익, 재활 13(6), 1981.
19. 조재갑 : 시력저하요인의 고찰, 대한안과학회잡지 24:705~710, 1983.
20. 조재갑 등 : 중학생의 시력 및 안굴절 상태, 대한안과학회잡지 24:695~703, 1983.
21. 최원식 등 : 서울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23:1079, 1980.
22.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 : 우리나라 "세계 장애자의 해" 기념사업계획 재활 12(8), 1980.
23. Bower, T.G.R.: Development in Infancy, 2nd Ed. W.H. Freeman & Co., 1982.
24. Cleather J.: Architectural Barriers. Physiotherapy CANADA 25(4): 229-234, 1973.
25. Cornacchia H., Staton, W.: Health in Elementary Schools 5th ed, Mosby Co., 1979.
26. Dalrymple W., Purcell, E.: Campus Health *Programs, Jonah Macy Juniro Foundation, 1976.
27. Goldsmith, S.: The Disabled: A Mistaken Policy? Rehabilitation in Australia 38: 12-27, 1972.
28. Korea Times: 2/12, 1986.
29. Nadar, P: Options for School Health, Aspen, 1978.
30. Schilzinger, M.S.: The Accident Syndrome; the Genesis of Accidental Injury. A Clinical Approach. Springfield, III.: Thomas, 1956.
31. Sellin, D.: Mental Retardation: Nature, Needs and Advocacy, Allyn 4 Bacon, Inc., 1979.
32. W.H.O.: The well being of the Elderly: Approches to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fset publication No. 84, 1984.
33. W.H.O.: New Approaches to Health Education in Primary Health Care. Technical Report Series No. 690, 1983.
34. W.H.O.: Disabilit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Technical Report Series, 668, 1981.